

중부권

“수확철 쌀 매입 어찌할꼬”

쌀값폭락으로 곳곳에서 수확을 앞둔 눈을 갈아엎는 등 농민들이 성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선 농협들이 매입가격은 물론 매입일정마저 잡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장흥 6개 단위농협, 재고 관리로 손실 눈덩이
쌀값 폭락 속 매입가·시기 못정해 '전전긍긍'

4월 2개의 RPC를 운영하고 있는 장흥 6개 단위농협들에 따르면 지난해 해 매입한 공공비축용 재고미를 관리하느라 적지않은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쌀값폭락으로 매입가를 크게 낮춰야 하지만, 농민들은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매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다.
이들 농협들은 지난해 공공비축용 19만4천4천가마와 자체 매입분 44만가마 등 모두 63만4천4천가마를 40kg 1가마당 5만5천원에 사들였다.
이로 인한 금융비용과 보관비용은 가마당 7천~8천원에 달해 지급받은 38억원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쌀값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경우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

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농협측이 내놓은 가마당 잠정 매입가는 4만5천원 선이다. 그러나 장흥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비료 및 농약 등 원자재값 인상에 따라 최소한 5만7천원 선은 유지돼야 한다”며 농협과 군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다.
군명식 농협 장흥군지부장은 “쌀값폭락에 따른 대책을 지자체나 일선

농협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쌀 대책지원을 재개하거나 쌀가공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중장기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민회측은 “자치단체인 군당국이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한 생산비는 군이 책임져야 한다”며 3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군당국은 군재정 형편상 지난해 수준인 11억원을 농협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농민회와 적지않은 갈등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흥익인간 뜻 기리며... 지난 3일 단기(檀紀) 4341주년 개천절을 맞아 화순군조송모회는 회원과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화순군조전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완준 화순군수가 초헌관으로 대제를 봉행했다. <화순군청 제공>

영암사랑 상품권 율 26억원 판매
기업 명절선물 이용 유도...지역경제 '활력'

영암군이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발행한 '영암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영암군은 발행 3년째를 맞은 영암사랑 상품권은 올해 5차례에 걸쳐 39억원어치를 발행, 지금까지 26억원어치가 판매됐다고 최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성과급, 시상금, 일·속직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5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매월 10만원 이상의 상품권

구매와 군내 기업에 명절선물로 상품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직원을 명절 보너스로 12억3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사 친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군은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현금체계를 일원화하고 공무원 1인 1가맹점 지정운동 등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영암=이성희기자 lsh@kwangju.co.kr

‘사랑합니다...’ 벼에 새긴 그리움

장성 눈에 盧 전 대통령 애도 벼글씨 ‘눈길’

“사랑합니다 ♡ 바보대통령 그림습니다 바보농민”
장성군 남면 분향리의 한 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벼 글씨’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천440㎡ 규모에 흑미벼로 쓰인 이 글씨는 남면에서 농사를 짓는 구재식(53)씨의 작품이다.
구씨는 지난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의 비보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자신이 짓던 논에 모내기를 하면서 애도하는 글귀를 만들었다.
글씨의 바탕에는 일반 품종인 황금누리를 심었고 글씨는 흑미인 녹원찰벼를 썼다. 바쁜 모내기철이었지만 20여일간 직접 손으로 모내기를 하며 글씨를 다듬었다. 글 도안은 미래를 졸업한 딸이 도왔고 논 주위에는 노 전 대

통령의 상징인 노란색을 표현하기 위해 노란 코스모스를 심었다.
구씨는 5일 “서거 소식을 듣고 봉화에도 가보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고, 분향소도 가지 못해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글을 만들었다”며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신데 갑자기 가버려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구씨는 이 달 말께 이 논에서 수확할 쌀에 ‘바보쌀’이라는 상표를 붙여 팔 생각이다.
수익금은 모두 불우이웃에게 쓰고 싶다는 구씨는 “꿈에라도 한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은데 아직 그러지 못했다”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고 항상 자신을 낮추는 삶의 자세가 존경스러웠다”고 회고했다.
/장성=김용기기자 yongho@



담양 죽순센터·하수오 단지 만든다

郡, 예산 14억원 확보 내년부터 본격 추진

담양군은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죽순의 체계적인 유통을 위한 ‘죽순유통센터’ 건립과 함께 한약재 ‘하수오’ 산지 약용특화단지를 조성한다.
5월 군에 따르면 ‘죽순유통센터’와 ‘하수오 산지 약용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2010년 산림소득증진사업’에 선정돼 13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확

보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9억4000만원이 들어가는 죽순유통센터는 담양읍 오계리에 가공공장과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유통시설을 내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죽순 저장 시설 부족으로 생업이 ‘2010년 산림소득증진사업’에 선정돼 13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확

유통이 가능하게 돼 죽순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맥경화 예방과 신장기능 강화, 모발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하수오를 남면 연천리 일대에 4억8천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8ha의 특화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죽순의 가공과 유통, 판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산지를 이용한 하수오 재배를 통해 임업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노정훈기자 cj17@

광산구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지자체 최초...장애인·노인 등 흡피 사용 용이

광산구가 광주시 자치단체 최초로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해 장애인·노령층 등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정부가 설립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부여하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이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는 홈페이지 인증제도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올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373개 사이트가 신청해 3개월간의 심사 끝에 44개의 사이트가 인증과 합격률이 20.

95%에 불과할 만큼 까다로운 평가로 유명하다.
구는 장애인과 노령층 등 정보화 소외계층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 자막제공,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만 웹 서핑이 가능하게 홈페이지를 개편해왔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우리의 IT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지만 정보화 약자 배려는 그렇지 못하다”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정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강화를 지속시켜왔다”고 밝혔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Advertisement for '금호부동산컨설턴트' (Kimho Real Estate Consultants) featuring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국민공인중개사' (National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경매전문회사' (Auction Specialist Company)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Sangmu 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details.